

李奎報 수필의 구조와 의미

河 岡 震*

차 례

- | | |
|--------------------|---------------|
| I. 序 論 | B. 확인·전달의 구조 |
| II. 수필에서 본 '說'의 성격 | IV. 작품의 의미 해석 |
| A. 수필의 개념과 장르 | A. 재관 현실의 비판 |
| B. '說'의 수필적 성격 | B. 이상 가치의 추구 |
| III. 작품의 구조 분석 | V. 結 論 |
| A. 설득·공감의 구조 | |

I. 序 論

李奎報(1168~1241)는 자신의 문학 사상을 전개하였고, 많은 문학 작품을 남겼다. 지금까지 이규보의 『白雲小說』, 『東明王篇』, 假傳, 漢詩에 관한 작품 연구와 그의 문학 사상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그의 수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수필 작품의 문학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되지 않는 탓도 있고, 수필문학사에서 이규보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소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물론 일부의 연구와 저서¹⁾에

* 동서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전임강사

1) 권두환, 「李奎報의 隨筆文學」, 『현상과 인식』 4권 2·3호,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80

서 이규보 수필의 일부를 다루고 있지만, 그의 수필 전체를 집중적·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²⁾

漢文學의 연구가 대체적으로 시가와 소설에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로 볼 때, 이러한 사정은 비단 이규보 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가와 소설이 한문학의 중심 장르이고, 수필이 주변 장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문학의 총체적 이해와 체계적인 수필문학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수필 작품의 연구가 지금보다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³⁾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이규보의 수필이다.⁴⁾ 이규보의 수필의 제목 끝에는 '序, 論, 說, 記' 등이 붙는데, 그중에서 '說'이 붙는 작품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그의 '說'이 붙은 작품은 「虱大說」, 「鏡說」, 「壤土峯說」, 「天人相勝說」, 「七賢說」, 「舟賂說」, 「忌名說」, 「理屋說」, 「雷說」, 「夢說」, 「堯擊貪臣

최승범, 「李奎報의 隨筆世界」, 『국어국문학』 제21집, 전북대 국어국문학회, 1980

최강현, 『古典隨筆講說』, 고려원, 1983

장덕순, 『韓國隨筆文學史』, 새문사, 1985

이강엽, 「說」의 장르성향과 소설적 變改 가능성, 『국어국문학』 112집, 국어국문학회, 1994

이지호, 「글쓰기의 문제 설정 방식 - '虱大說'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113집, 국어국문학회, 1995

이대규, 『수필의 해석』, 신구문화사, 1996

- 2) 각주 1)의 저서 중 이대규님의 이규보의 수필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이전의 해석 방법과는 달리한다. 작품의 내재적 분석을 통하여 작품 구성의 특징을 밝히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본고는 이 분석의 틀을 많이 참고하였다.

- 3) 한문학의 다양한 문체 중 그 일부의 문체를 수필의 차원에서 다룬 논문을 들면 아래와 같다.

김석하, 「雜記文學論序說」, 『東洋學』 제5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5

전형대, 「漢文學에서 隨筆장르의 設定問題」, 『논문집』 7집, 경기대, 1979

김성연, 「序」의 文體的 特性에 대하여, 『國文學論叢』(台에崔東元先生華甲紀念), 동간행위원회, 1983

김진곤, 「漢文學에서 隨筆의 概念과 性格」, 『정신문화연구』 통권 36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김성진, 「序跋類의 隨筆의 性格에 대하여」, 『國語國文學』 26집,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90

- 4) 수필은 지식 전달 중심의 공식적 수필(formal essay)과 정서 작용 중심의 비공식적 수필(informal essay)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수필 용어를 쓴다.

說」, 「論詩說」 등 모두 12편이다. 그는 여러 가지 사건을 선택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어떤 작품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된 생각이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虱犬說」이 이런 예에 속한다. 일부의 작품은 사람들의 기발한 생각이 자연 법칙인 「道」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한다. 「壤土室說」이 여기에 속한다. 또 다른 작품은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생각이 옳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러한 작품의 예는 「鏡說」이다.

이규보 「說」의 수필로서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우선 수필의 개념과 장르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에 이규보의 여러 작품을 특정한 유형에 따라 그 구조적 특성을 밝힌다. 작품의 구조는 제재에 대한 작가의 태도와 이를 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가하는 점에 기준을 둔다. 그리고 밝혀진 구조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과 해석의 결과는, 「說」의 수필적 특성과 이규보의 수필의 한 성격을 부각시켜 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Ⅱ. 수필에서 본 「說」의 성격

A. 수필의 개념과 장르

수필을 검토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수필의 개념과 장르 문제이다. 우선 수필이라는 용어는 작품이나 저술의 명칭의 일부로 쓰였다는 점이다.⁵⁾ 수필의 개념과 관련하여, 洪邁(1123~1202)는 수필로 명명한 이유를 “내가 늙어감에 습성이 게을러져 독서가 충분하지 않았다. 다만 생각나는 대로 그때 그때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선후를 가리지 않았고 일정한 체계(詮次)를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隨筆이라 한다.”⁶⁾라고 밝혀 놓았다. 여기서

5) 저술의 명칭으로서의 수필은 洪邁의 『容齋隨筆』에 처음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서는 尹听의 『陶齋隨筆』(1638년 이전), 李敏求의 『讀史隨筆』(1652년), 朴趾源의 『馴迅隨筆』(1780년), 安鼎福의 『稼翁隨筆』(1781년) 등에 그 용례가 보인다. 이중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문헌 중 최초의 작품은 연암의 『馴迅隨筆』이다.

6) 洪邁, 「容齋隨筆序」, 『容齋隨筆』 “予老去習懶 讀書不多 意之所之 隨卽紀錄 因其後先 無復詮次 故目之曰隨筆”

‘일정한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특정 사실에 대한 변증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 단정함으로써 잘못될 수도 있다는 뜻⁷⁾을 말한다. 즉 수필의 용어는 종류로서의 작품을 말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보다는 하나의 저술 태도를 나타내며, 집필 자세의 진실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⁸⁾ 이것은 전통적인 한문학의 저술법도인 ‘述而不作’을 지키지 못하고 ‘述而作’한 데 따른 검사의 용어⁹⁾로 이해된다.

‘수필’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저술의 태도나 책 제목의 일부로 쓰였는가, 아니면 장르적 성격까지도 함축하고 있는가하는 점을 변별해서 그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만일 수필을 단순히 ‘붓가는 대로 쓴 글’이라는 정도의 의미라면, 소위 ‘漫錄’, ‘漫筆’, ‘隨錄’, ‘信筆’¹⁰⁾, ‘雜記’, ‘雜錄’, ‘稗說’, ‘筆記’ 등의 용어와도 그 개념의 차이를 밝힐 수도 없다. 그리고 수필에 속하는 작품과 수필에 속하지 않는 작품을 구별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¹¹⁾

수필을 장르 명칭으로 쓸 경우에는 보편적인 장르 기준에 따라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카터 콜웰은 제시 방법(form of presentation) - 청중, 작가, 작품의 상호 관계 - 과 구조(structure)의 이중성에 근거하여 문학 장르를 구분하였다.¹²⁾ 수필은 실제 인물인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경험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제시 방법과 테마(주제)에 중심을 둔 구조가 특징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필은 “작품의 작가와 화자가 일치하고, 제재와 주제 중심의 산문 문학”이라고 장르적 정의를 할 수 있겠다. 작가는 제재 즉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나 보고 들은 사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작가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작품의 단위와 구조, 수많은 요소와 다양한 전개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¹³⁾ 작가는 다른 문학 작품에 포

7) 김건곤, 앞의 논문, p.197

8) 김성진, 앞의 논문, p.395

9) 김건곤, 위의 논문, p.208

10) 李齊賢, 「機翁稗說後集序」 “本以驅除閑悶 信筆而爲之者 何怪夫其有戲論也”

11) 이대규, 앞의 책, pp.20~21

12) C.Carter Colwell/이재호·이명섭역, 『문학개론』, 을유문화사, 1991, pp.109~120

13) 이대규, 위의 책, p.31, p.79

함되는 수많은 요소 즉 인물, 공간, 시간, 운율, 패턴, 제목, 시점, 심상과 상징, 파라독스, 어조, 문체 등 고려한다. 또 묘사, 서사, 연상, 일반화와 특수화, 이유와 의견, 비교와 대조, 물음과 답에 의한 전개 등 다양한 전개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수필에 내재한 요소와 전개 방법을 고려하면, 무형식 혹은 산만한 것이 수필의 본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수필 작품의 연구는 제재와 주제의 통일성이나 일관성, 작품의 단위와 구조, 요소와 전개 방법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B. '說'의 수필적 성격

산문의 문체 분류 중 흔히 論辨類로 분류되는 '說' 작품의 특징을 수필 장르의 성격에 비추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說'은 일차적으로 어떤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뜻한다. 이야기는 사건을 말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이야기가 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는 사건만이 이야기가 되어, 말하고 들을 만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작가는 의미있는 이야기를 선택하여 새로운 인식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 간접적인 방식, 곧 寓言의 형식¹⁴⁾을 통하여 사물의 이치나 자신의 어떤 생각과 정서를 형상화하게 되는¹⁵⁾ 특징을 갖는다.

'說'이 붙은 작품은, '이런 이야기 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이런 의미를 깨닫게 한다.'라는 주제를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사건은 작품의 제재가 되며, 의미는 작품의 주제가 된다. 작가는 자신이 참가한 사건이나 들어서 알게 된 사건 중에서 의미를 가진 사건을 작품화하고, 이러한 작품의 제목 끝에 '說'을 붙인다. 그리고 주제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

14) '說'의 양식적 특성은 몇가지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그 기원은 선진 제가에 두고 있다는 점, 둘째 한나라 이래 저술가들은 여러가지 說을 많이 지었는데, 거의 寓言을 담고 있다는 점, 셋째 그것은 時俗의 병리 현상을 비판한 선비들이 자신의 뜻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사물에 의탁하여 뜻을 드러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薛鳳昌, 『文體論』, 대만 상무인서관, 1977, p.53) 이중에서 說이 필자의 寓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양식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15)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概論』, 北京大學出版社, 1992, p.343

묘한 표현을 활용해서 언어의 설득력을 강화”(飛文敏以濟辭)¹⁶⁾한다.

‘說’에서의 사건은 작품 내적 세계와 작품외적 세계가 일치하는 실세성을 가지며, 내용적으로는 교술성이 혼효된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교술성과 함께 작품 외적 세계와는 다른 허구성도 공존하는 데, 이점은 바로 완전한 허구의 문학인 소설로의 변개 가능성을 가진다.¹⁷⁾ 특히 서사성은 작품 속의 인물의 갈등에서 강화된다. 인물의 갈등은 주로 상상적인 대화를 통해 전개되고, 사건이 해결된다. 이러한 ‘說’의 상상적 대화 형식은 기존의 경험 구조를 바탕으로하여 새로운 제3의 경험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說’은 작품 속의 관념,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전달 방식으로서의 대화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說’은 직접 서술을 피하고, 대화적 관계로 극화시킴으로서 전달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산출된 양식이라 할 수 있다.¹⁸⁾

‘說’은 작가가 직접·간접으로 ‘이야기’에 참가하기 때문에 작가와 화자가 일치하고, 작가가 제재인 ‘이야기’에서 느낀 정서와 사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주제 중심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와 화자가 일치하고, 제재와 주제 중심의 문학인 ‘說’을 수필 장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작품의 구조 분석

이규보의 ‘說’이 우언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제재를 다루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의 양상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제재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독자로 하여금 공감하도록 하는 ‘설득·공감의 구조’이고, 둘째는 작가가 제재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확인하고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확인·전달의 구조’이다. 이러한 내적 구조의 차이는 제재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16) 劉鑑 자/최동호 역편, 「論說」, 『文心雕龍』, 민음사, 1994, p.240

17) 이강열, 앞의 논문, pp.144~157 참고

18) 황순재, 『한국 관념소설의 세계』, 태학사, 1996, p.32 참고.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규보의 說 작품을 이 두 가지 양상에 근거하여 분류한다. 설득·공감의 구조에 속하는 작품은 「風犬說」, 「鏡說」, 「壤土室說」, 「天人相勝說」, 「七賢說」이고, 확인·전달의 구조에 속하는 작품은 「舟賂說」, 「忌名說」, 「理屋說」, 「雷說」, 「夢說」, 「堦擊貪臣說」, 「論詩說」이다.¹⁹⁾

A. 설득·공감의 구조

1. 작품의 실제 분석

1) 「風犬說」

(손님)²⁰⁾

1.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는 개를 몽둥이로 쳐서 죽이다.
2. 나는 그것이 참혹하여 마음이 아프다.
3. 나는 개나 돼지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다.

(화자)

4. 어떤 사람이 이를 불에 태워 죽이다.
5. 나는 마음이 아프다.
6. 나는 이를 죽이지 않기로 결심하다.

(손님)

7. 큰 동물이 죽는 것은 불쌍하다.
8. 작은 생물이 죽는 것은 불쌍하지 않다.
9. 큰 동물의 죽음과 작은 생물의 죽음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화자)

10. 모든 동물은 살려고 하고 죽기를 싫어한다.
 - 10.1. 사람,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도 죽음을 싫어한다.
 - 10.2. 열 손가락을 깨물면 모든 손가락이 아프다.

19) 지면 관계상 「七賢說」, 「夢說」, 「堦擊貪臣說」, 「論詩說」의 4편을 제외한 8편의 작품을 구체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나머지 작품도 논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0) 이대규, 앞의 책, pp.136~137

- 10.3. 달팽이도 뿔은 다치면 아프고, 소도 뿔을 다치면 아프다.
 10.4. 메추리 상처입은 고통이나 죽음은, 봉새 상처입은 고통이나 죽음과 같다.
 11. 모든 생물의 아픔과 죽음은 크기와 관계없이 같음을 깨달아야 한다.²¹⁾

위 작품의 제재는 동물의 아픔과 죽음이다. 이 제재에 대한 손님과 화자(나)의 상이한 생각을 다룬다. 1~3은 손님의 생각이고, 4~6은 손님의 생각에 대한 화자의 대화이다. 7~9는 화자의 생각에 대한 손님의 말이고, 10은 손님의 생각에 반대하는 화자의 의견이다. 11은 작품 전체에서 손님과 화자의 대화를 통하여 도출된 일반적 진술이다.

1~3은 손님이 관찰한 것에 대한 내면적 반응이다. 1은 2의 원인이고, 2는 1의 결과이며, 3은 2의 결과이다. 4~6은 화자가 관찰한 것에 대한 그의 반응이다. 4는 5의 원인이고, 5는 4의 결과이며, 6은 5의 결과이다. 7~9는 화자의 반응에 대한 손님의 생각이다. 화자가 6에서 이의 죽음을 아프다고 한 데 대하여, 손님은 개와 이의 죽음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화자는 10에서 손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부정한다. 이 의견의 타당성 여부가 손님의 의견을 부정하는 관건이 된다. 화자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다. 우선 큰 동물인 소, 말, 돼지, 양의 죽음과 작은 동물인 벌레, 개미의 죽음의 동일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열 손가락이 느끼는 동일한 아픔과 달팽이, 메추리, 소, 봉새들이 느끼는 동일한 아픔과 죽음의 예가 그것이다. 11은 논리적 결론으로 설득의 중심 내용이며, 작품 전체의 의미이기도 하다.

제재인 동물의 아픔과 죽음에 대한 화자와 손님의 반응은 공통점과 차이

21) 李奎報, 『風犬說』, 『東國李相國集』(韓國文集叢刊 1, 민족문화추진회) 권21 “客有謂予曰 昨晚見一不逞男子 以大棒子椎遊犬而殺者 勢甚可哀 不能無痛心 自是誓不食犬家之肉矣 予應之曰 昨見有人擁熾爐捫虱而烘者 予不能無痛心 自誓不復捫虱矣 客撫然曰 虱微物也 吾見彪然大物之死 有可哀者故言之 子以此爲對 豈欺我耶 予曰 凡有血氣者 自黔首至于牛馬猪羊昆虫蠅蟻 其食生惡死之心 未始不同 豈大者獨惡死而小則不爾耶 然則犬與虱之死一也 故舉以爲的對 豈故相欺耶 子不信之 盍斲爾之十指乎 獨捫指痛 而餘則否乎 在一體之中 無大小支節 均有血肉 故其痛則同 況各受氣息者 安有彼之惡死而此之樂乎 子退焉 冥心靜慮 視蝸角如牛角 齊斥鴳爲大鵬 然後吾方與之語道矣”

점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공통점은 화자와 손님이 모두 동물의 아픔과 죽음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불쌍한 동물의 아픔과 죽음에 대하여 손님은 큰 동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화자는 모든 동물의 죽음이 다 불쌍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기 위하여 우선 작은 동물들 - 벌레, 개미, 달팽이, 메추리 등 - 의 아픔과 죽음도 모두 불쌍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열 손가락이 모두 깨물면 아프다고 주장한다.

화자와 손님의 인식 차이는 사유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작은 동물에 대한 관점을 모든 동물에 대한 시각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이는 작은 동물 자체의 아픔이라는 실질적인 것을 문제삼고 있다기보다는 형식논리적인 관점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우선 아주 작은 동물들은 인간이 기르는 것이 아니어서 동물의 죽음에 대해 모든 사람이 불쌍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²²⁾ 그리고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의 아픔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겠지만, 그것이 동물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손님이 예로 든 큰 동물들은 모두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들이라는 점에서, 동물들의 죽음에 대해 불쌍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보편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화자와 손님의 차이점은 재재의 해석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작품의 마지막에 화자의 생각에 대한 손님의 반응이 생략되어 있는 것도 이런 점에서 해석된다. 화자는 단순히 형식논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손님에게 설득시키려 한다. 그런데 화자가 제기한 아주 작은 동물(이)의 죽음이 불쌍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이 생략되어 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이상 손님의 반응이 없는 것은 화자의 의견에 전적인 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22) 작가의 주관적 해석은 작품에서 관점의 불통일성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제재로 한 「孤籬」을 보면, 그는 이의 죽음에 대하여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간악한 존재로 파악하고, 인간에게 기생할 경우 죽여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또 꿈이 동일한 제재로 쓰인 「夢說」에는 꿈을 징험의 수단으로 보았고, 「夢驗記」에서는 꿈을 괴탄하다고 한 것에서도 관점의 불통일성이 나타난다.

2) 「鏡說」

1. 居士가 거울 하나를 가지고 있다.
 - 1.1. 거사의 거울은 먼지가 끼어 회미하다.
 - 1.2. 거사가 조석으로 들여다보고 얼굴을 단정하게 하다.
2. 손님이 흐린 거울을 보는 까닭을 묻다.
 - 2.1. 군자는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자기의 모습을 맑게 한다.
 - 2.2. 거사의 먼지 낀 거울은 얼굴을 바르게 비추지 못하므로, 이것을 보고 얼굴을 좋게 단장할 수 없다.
 - 2.3. 손님이 거사가 회미한 거울을 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다.
3. 거사가 흐린 거울을 보는 이유를 설명하다.
 - 3.1. 거울이 맑으면 잘 생긴 사람은 기뻐하고, 못 생긴 사람은 싫어한다.
 - 3.2. 못 생긴 사람이 맑은 거울을 보면 깨뜨리고 만다.
 - 3.3. 거울의 먼지는 걸만 흐리게 하고, 그 맑은 것은 흐리게 하지 못한다.
 - 3.4. 나는 (못 생긴 사람이므로) 흐린 것을 취하려 한다.
4. 손님은 더 이상 상대하지 못하다.²³⁾

위의 작품도 화자(거사)와 손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1은 작품의 제재를 나타낸다. 거사가 흐린 거울을 보는 것을 보고, 손님은 2에서 그 까닭을 묻는다. 3은 손님의 질문에 대한 화자의 대답이다. 4는 화자의 답변에 대해 손님이 수궁하였음을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화자는 제재에 대한 의견을 손님에게 설득하여, 공감토록 하고 있다.

2에서 손님은 거울의 일반적인 용도에 대한 것을 제기한다. 거울은 얼굴을 보거나 자신의 모습을 맑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한다. 그런데 손님의 시각에서는, 거사의 거울보는 행위가 비정상적으로 인식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즉 흐린 거울을 닦지 않은채 자주 거울을 보는 행위는 거울의 일반적인 용도에서 보면 어긋난다는 것이다. 3에서 화자는 거울을 보는 주체에 주목

23) 「鏡說」 “居士有鏡一枚 塵埃侵蝕 掩掩如月之翳雲 然朝夕覽觀 似若飾容貌者 客見而問曰 鏡所以鑒形 不則君子對之 以取其清 今吾子之鏡 濛如霧如 既不可鑑其形 又無所取其清 然吾子尚炤不已 豈有理乎 居士曰 鏡之明也 妍者喜之 醜者忌之 然妍者少醜者多 若一見必破碎後已 不若爲塵所昏 塵之昏 寧蝕其外 未喪其清 萬一遇妍者而後磨拭之 亦未晚也 噫 古之對鏡 所以取其清 吾之對鏡 所以取其昏 子何怪哉 客無以對”

을 한다. 얼굴의 생김새에 따라 거울을 보는 행위가 다름을 지적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거울의 맑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거울의 본질상 거울에 끼인 먼지는 언제나 제거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므로 크게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울의 맑음과 흐림보다는 오히려 깨끗한 거울을 볼 수 없는 자신의 얼굴 생김새가 문제된다는 인식이다. 이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도 생각에 따라서는 정상일 수도 있다는, 사고의 개방성을 강조한 것이다. 4에서 더이상 화자의 의견에 대한 손님의 반론이 없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손님의 반론이 없는 것은 화자의 생각에 공감함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의 공감은 새로운 인식을 의미한다. 즉 거울은 반드시 맑은 것이 아니더라도 흐린 것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이 새로운 깨달음은 작품의 중심적 의미에 해당한다.

3) 「天人相勝說」

1. 劉子가 사람이 많으면 하늘을 이기고, 하늘이 정해지면 사람을 이긴다고 하다.
2. 사람이 많으면 하늘을 이긴다.
 - 2.1. 내가 완산의 서기로 있다가 동료의 모략으로 파면되다.
 - 2.2. 내가 서울에 온 뒤 9년 동안 관계에 진출하지 못하다.
3. 하늘이 정해지면 사람을 이긴다.
 - 3.1. 중상모략하던 사람이 죽다.
 - 3.1. 내가 한림에 보직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다.
4. 어떤 사람이 나의 믿음을 비난하다.
 - 4.1. 태공과 주매신은 모략을 입지 않아도 출세가 늦어지다.
 - 4.2. 그것은 운명에 의거한 것이다.
5. 나는 어떤 사람의 말에 대답하다.
 - 5.1. 태공과 주매신의 늦은 출세는 운명이다.
 - 5.2. 나의 운수는 그 당시에 크게 나쁘지 않았다.
 - 5.3. 나의 늦은 출세는 나쁜 사람이 조장한 것이다.
6. 어떤 사람이 또 말하다.
 - 6.1. 운수는 당시에 크게 나쁘지 않았다.
 - 6.2. 나쁜 사람이 기회를 타서 만든 것도 운명이다.
7.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하다.
 - 7.1. 내가 그때 참지 않아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 7.2. 내가 자초한 것이므로 운명이라고 볼 수 없다.

8. 어떤 사람이 말하다.

8.1. 나의 출세가 늦은 것은 운명이 아니라는 것에 감복하다.

8.2. 내가 높은 지위를 획득한 것은 마땅하다고 하다.²⁴⁾

이 작품의 제재는 한 사람의 출세의 늦고 빠름이 운명인가 아닌가하는 것이다.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제재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 1~3이며, 다른 하나는 화자(나)와 어떤 사람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4~7이다. 우선 1에서 화자는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이긴다’는 대전제를 내세운 뒤, 이를 2와 3의 논거를 통하여 증명한다.

대 전 제 : 사람이 많으면 하늘을 이기고(1), 하늘이 정해지면 사람을 이긴다(2).

소전제(1) : 사람이 많다.

결론 (1) :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

소전제(2) : 하늘이 정해진다.

결론 (2) : 하늘이 사람을 이긴다.

화자는 결론(1)과 (2)에 이르게 된 이유로서 자신의 체험적 사실을 든다. 2의 첫번째 결론인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이 동료들의 모략으로 파면당하였고, 9년 동안 관계에 진출하지 못한 것에서 도출한 것이다. 3의 두번째 결론인 ‘하늘이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모함을 한 사람이 죽자 비로소 화자가 고위 관직에 오른 경험적 사실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대전제 (1)과 (2)를 증명함으로써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화자의 이러한 논리적 전개는 어떤 사람(상대방)에 의하여 부정된다. 4에서 손님이 늦게 높은 관직에 오른 태공과 주매신의 예를 들어서,

24) 「天人相勝說」 “劉子曰 人衆者勝天 天定亦能勝人 予早服斯言久矣 今益信之也 何者 予嘗掌記完山 爲同寮者所讒見罷 及到京師 其人亦常在宴會 箕其舌而鼓之 故凡九年莫見調 此乃人勝天也 豈天哉 及其人已斃 然後卽其年入補翰林 因累涉清要 過登高位 則此乃天勝人也 人豈可終妨哉 或難之曰 太公八十遇文王 朱買臣五十而貴 此寧有人讒之而晚遇耶 實命數使然也 予曰 二公之晚遇者 如子所言命數也 算予命雖於其時不至大蹇 有凶人乘之 而鍛成其大故也 或又曰 命未大屯 而凶人乘而助之 亦命也 何謂是哉 予曰 我於其時 若小忍之而不與之爲隙 則必無是也 以予所自召而致之也 則何關乎命哉 或者服之曰 子之悔過也如此 宜乎遠到也”

그것이 운명이라고 하여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는 대전제(1)을 부정한다. 화자는 5에서 손님의 견해를 인정한 뒤, 다시 어떤 사람의 견해를 부정한다. 내가 높은 관직에 늦게 오른 것은 운명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사건을 조작했기 때문에 결코 운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6에서 나쁜 사람이 사건을 조작한 것 자체도 운명이라고 하여, 또 다시 화자의 견해를 부정한다. 화자는 7에서 자신의 출세가 늦은 것을 운명적 요소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즉 대전제(1)을 재확인함으로써 결코 운명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러한 화자의 견해에 대하여 결국 어떤 사람은 8에서 화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명하게 됨으로써, 화자가 내세운 대전제 (1)과 (2)를 부정하는데 실패한다. 즉 화자는 작품의 서두에 내세운 대전제를 설득하고 공감할 유도하는데 성공한다. 이러한 설득과 공감의 내용이 이 작품의 주제에 해당된다.

4) 「壤土室說」

1. 李子가 아이들이 흙을 파서 무덤 모양의 집을 만든 것을 목격하다.
2. 이자가 어리석은 체하며 무덤을 만든 이유를 묻다.
3. 아이들이 무덤이 아니라 土室이라 대답하다.
4. 이자가 토실을 만든 이유를 묻다.
5. 아이들이 토실의 유용성을 말하다.
 - 5.1.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기 좋다.
 - 5.2. 온화하기 때문에 길쌈하는 부인의 손이 얼지 않는다.
6. 이자가 더욱 화를 낸다.
 - 6.1. 겨울이 더운 것은 괴이한 것이다.
 - 6.2. 굴속에서 길쌈을 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 6.3. 겨울에 꽃이 피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 6.4. 괴이한 물건을 길러서 구경하는 것은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다.
 - 6.5. 토실을 허물지 않으면 폐리겠다고 하다.
7. 아이들이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수정하다.
 - 7.1. 아이들이 토실을 철거하다.
 - 7.2. 아이들이 그 재목으로 뿔나무로 삼다.
8.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다.²⁵⁾

25) 「壤土室說」, “十月初吉 李子自外還 兒子輩鑿土作廬 其形如墳 李子佯恐曰 何故作墳於家 兒子輩曰 此不是墳 乃土室也 曰奚爲是耶 曰冬月宜藏花草瓜蔬 又宜婦女紡

위의 작품도 화자(李子)와 어린 아이들의 대화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은 작품의 제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2~5에서는 제재를 중심으로 두 번에 걸친 문답이 이루어진다. 두 번의 반복적인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화자는 제재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게 되고, 이 결과 6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즉 2~5는 6의 원인이 되고, 6은 2~5의 결과이다. 7은 화자의 태도에 대한 어린 아이들의 반응으로, 6의 결과인 동시에 8의 원인이 된다. 8은 7의 결과이다.

화자의 정서적 반응의 경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번호 2 : 어리석은 체하다.
- (2) 번호 6 : 더욱 화를 내다.
- (3) 번호 8 : 마음이 편안하다.

‘어리석은 체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화자의 마음을 숨기는 것인데, 사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객관적 사태의 파악은 화자가 계기적인 정서적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즉 토실을 만든 목적이 화자의 생각과 차이가 남을 확인함으로써 화를 내게 된다. 화자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뜻대로 그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있음에 대한 내면적 반응이다.

어린 아이들의 정서적 반응은 처음과 중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 ‘두려워함’의 내면적 상태는 두 가지 원인을 가진다. 하나는 화자의 강요된 행위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이치를 깨달음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이 중에서 두려워함의 표면적 의미는 화자의 위협적 행위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라면, 심층적 의미는 아이들이 사물의 이치를 자각한 결과, 즉 화자의 견해에 대한 공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자와 아이들의 심리적 반응의 과정은 이 작품의 의미가 어디에

續者 雖盛寒之月 溫然若春氣 手不凍裂 是可快也 李子益怒曰 夏熱冬寒 四時之常數也 苟反是則爲怪異 古聖人所制 寒而裘 暑而褐 其備亦足矣 又更營土室 反寒爲煖 是謂逆天令也 人非蛇蟄 冬伏窟穴 不祥莫大焉 紡績自有時 何必於冬歟 又春榮冬悴 草木之常性 苟反是 亦乖物也 養乖物爲不時之翫 是奪天權也 此皆非予之志 汝不速壞 吾答汝不赦也 兒子等懼亟撤之 以其材備炊薪 然後心方安也”

있는가를 알게 한다. 화자는 하늘의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매사에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행동의 규범이 되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화자는 아이들의 반응을 통하여 작품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2. 제재의 설득적 성격

「虱犬說」은 동물의 아픔과 죽음이라는 공통된 제재에 대하여 손님과 화자의 대립되는 견해를 다루고 있다. 손님은 큰 동물의 아픔과 죽음에 대해서만 불쌍한 감정을 느끼고, 화자는 모든 동물의 아픔과 죽음에 대해 불쌍함을 느끼는 대립적 상황을 보여준다. 대화의 주체인 손님과 화자는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화자는 상대방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한다. 그리고 손님은 화자의 생각에 대한 의문점을 재반론함으로써 대화가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되는 대화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즉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진리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다.

「鏡說」은 화자(居士)와 손님이 거울을 보는 태도를 공통된 제재로 하고, 단 하나의 대화로 전개된다. 화자와 손님은 거울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손님은 거울의 깨끗함을 취하고, 화자는 거울의 흐림을 취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손님이 거울의 흐림을 취하는 화자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자, 화자는 거울의 맑음은 먼지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깨끗한 거울을 볼 수 없음을 말한다. 결국 손님은 화자의 대답에서 거울은 반드시 맑은 것이 아니더라도 흐린 것도 취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다. 대화가 하나만 있는 것은 제재의 특성상 많은 대화가 필요없고, 상대방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임을 뜻한다. 작품의 마지막에 “손님이 더 이상 상대하지 못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공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天人相勝說」은 서술과 대화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서술 부분은 공통되는 제재와 관련되고, 대화 부분은 제재에 대한 화자와 어떤 사람의 논쟁이 반복되는 문답으로 이루어진다. 대화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즉 출세의 여부가 사람 관계에 따르

는 것이냐 아니면 운명과 관련되는 것인가하는 것은 쉽게 해결될 성질은 아니다. 그래서 화자는 대전제로 설정한 일반적 진술을 차례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미처 증명되지 않은 화자의 답변에 대하여 계속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어떤 사람은 화자의 견해에 공감하여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새로운 인식은 화자의 견해, 즉 출세가 늦은 것은 운명이 아니라 나쁜 사람의 모략 때문이라는 점에 공감함을 의미한다.

「壞土室說」의 제재는 아이들이 만든 토실이다. 이 토실에 대한 화자와 아이들의 견해의 차이가 대화를 통해 전개된다. 대화의 성립 근거는 화자의 분별력과 아이들의 무지에 있다. 아이들은 화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무지를 자각하고, 새로운 진리에 도달한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대화를 통하여 아이들은 화자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무지함을 깨달아 자신들의 행동을 수정한다. 아이들이 토실을 허문 것은 화자의 견해에 공감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대화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계기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상의 네 작품은 설득과 공감의 구조를 취한다. 이 구조에서는 대화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경우의 대화는 변증법적 성격²⁶⁾을 갖는다. 이 유형의 작품에서는 논쟁이 될 만한 제재를 다룬다. 이 제재에 대하여 화자와 상대방은 상이한 의견을 나타내고, 서로의 다른 견해는 대화를 통해서 확인되고, 대화의 과정 속에서 화자가 상대방을 설득하여 공감을 유도한다. 이 공감의 내용은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진리의 인식이라는 함축적 의미가 있다.

26) 辨證法은 추론에 의하여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추론은 대화에 의존하는데, 변증법을 대화를 모델로 하는 사고, 대화적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대화가 중요한 형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주체가 설정되어야 하고, 공통되는 화제를 다루어야 하며, 대립과 부정을 통하여 일치 화해에 도달하여 새로운 진리의 발견으로 발전되는 형식을 취한다. (韓端錫, 『헤겔哲學思想의 理解』, 한길사, 1981, pp.181~206 참고)

B. 확인·전달의 구조

1. 작품의 실제 분석

1) 「舟路說」

- 1.李子가 탄 배와 또 다른 배가 강을 나란히 건너다.
2. 두 배는 크기, 사공, 탄 사람과 말의 수가 거의 비슷하다.
3. 어떤 사람이 탄 배는 빨리 달린다.
4. 내가 탄 배는 전진하지 않다.
5. 내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묻다.
6. 어떤 사람이 탄 배의 사공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다.
7. 내가 뇌물을 주지 않아 배가 빨리 가지 않음을 알다.
8. 내가 관직을 얻지 못한 것은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⁷⁾

화자(李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경험한 이야기가 제재이다. 화자는 자신이 탄 배가 빨리 가지 않는데 비해, 비슷한 조건을 가진 다른 배는 빨리 가게 되는 이상한 현상에 주목한다. 화자는 그 이유를 모른데, 2에서 두 배의 크기나 사공, 탄 사람과 말의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더욱 사실을 알 수가 없다. 화자는 6에서 다른 사람이 탄 배가 빨리 달리는 것은 그 사공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고, 7에서는 자신이 탄 배의 사공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감을 알게 된다.

8에서 화자는 이 현상을 현재의 자신의 처지에까지 확대한다. 그가 아직까지 하급 관직을 하나도 얻지 못한 것도 관리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처지가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것도 뇌물이 성행하는 부당한 현실에서 비롯되었음을 도출해낸다. 작품의 제재인 배 타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처지가 곤궁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작품의 중심적 의미이다.

작품의 제목도 작품의 주제와 관련있다. 「舟路」는 「배가 뇌물을 먹다」이다.

27) 「舟路說」 “李子南渡一江 有與方舟而濟者 兩舟之大小同 榜人之多少均 人馬之衆寡 幾相類 而俄見其舟離去如飛 已泊彼岸 予舟猶迴不進 問其所以 則舟中人曰 彼有酒以飲榜人 榜人極力蕩槳故爾 予不能無愧色 因歎息曰 嗟乎 此區區一葦所如之間 猶以賂之之有無 其進也有疾徐先後 況宦海競渡中 顧吾手無金 宜乎至今未嘗一命也 書以爲異日觀”

배가 뇌물을 먹은 것은 다름아닌 배의 사공이 뇌물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배의 사공은 일정한 값을 받고 운행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 제공 여부에 따라 배를 운행하는 행태는 비정상적이다. 따라서 ‘舟賂說’의 제목은 뇌물을 받아서 운행을 하는 당시의 타락한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상대방과 말을 주고 받음으로써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화자는 자신이 미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를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통하여, 불우한 삶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기보다는 강직한 삶의 태도를 배척하는 외부적 현실에 있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2) 「忌名說」

1. 李子在 오덕전에게 그의 이름이 난 까닭을 묻다.
2. 오덕전은 이자의 물음에 답하다.
 - 2.1. 사방을 방랑하면서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 2.1. 과거 시험에 매번 낙방하다.
 - 2.3. 실속없이 허영만 누리게 되다.
 - 2.4. 이 때문에 곤궁하게 지내게 되다.
 - 2.5. 평생 이름을 꺼리다.
3. 오덕전은 매우 겸손하다.
4. 오덕전이 재주만 믿고 남에게 거만하다는 말은 잘못되다.²⁸⁾

이 작품의 제재는 인물 평가에 대한 타당성이다. 1은 제재에 대한 화자의 물음이고, 2는 화자의 물음에 대한 상대방의 대답이다. 대화에서 얻은 오덕전에 대한 정보는 이전의 소문과는 매우 다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로 작용한다. 3은 실제 오덕전에 대한 화자의 새로운 평가이고, 이 평가를 통해 기존의 평가를 부정한다. 기존의 평가를 부정하는 4가 이 작품의 중심적 의미이다. 이 작품에서 대화는 새로운 실체를 발견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28) 「忌名說」 “李子問吳德全曰 三韓自古以文鳴於世者多矣 鮮有牛童走卒之及知其名者 獨先生之名 雖至婦女兒童 無有不知者 何哉 先生笑曰 吾嘗作老書生 開口四方 無所不至 故人多知者 而連舉春官不捷 則人皆指以爲今年某又不第矣 以此熟人之耳目耳 非必以才也 且無實而享虛名 猶無功而食千鐘之祿 吾以是窮困若此 平生所忌者名也 其貶損如此 或以公爲恃才傲物 此甚不知先生者也”

작품의 제목에서도 이 작품의 의미를 암시한다. 오덕전의 기존 평가가 매우 거만한 것이지만, 작품의 제목에서는 이름나기를 꺼리는 겸손한 사람임을 함축한다. 실제 오덕전을 만나보고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理屋說」

1. 내가 집 세 칸을 모두 수리하다.
 - 1.1.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으나 미처 수리하지 못하다.
 - 1.2.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다.
2. 집을 수리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경비에서 차이가 나다.
 - 2.1. 두 칸은 경비가 많이 들다.
 - 2.2. 다른 한 칸은 경비가 적게 들다.
3. 사람의 몸도 집수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다.
 - 3.1.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한다.
 - 3.2.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면 좋은 사람이 된다.
4. 나라의 정사도 집수리와 같다고 생각하다.
 - 4.1. 제 때 개혁하지 않으면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 4.2. 국정에 잘못이 있다면 제 때에 고쳐야 한다.
5. 모든 일은 조심해서 처리해야 한다.²⁹⁾

이 글의 직접적인 제재는 집을 수리한 행위이며, 간접적인 제재는 몸의 관리와 국정이다. 작가는 이 제재에서 도출될 수 있는 일반적 관념을 다루고 있다. 1~2는 화자가 집을 수리한 실제의 사실을 나타내고, 3~4는 집수리를 통하여 깨달은 화자의 생각을 다루었다. 집을 수리한 행위를 개인적인 몸의 관리와 정치 행위와 관련시켜,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시킨다. 2.1은 3.1, 4.1과 관련되고, 2.2는 3.2와 4.2와 관련된다. 집 수리와 몸 관리와 국정을 비교의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다. 즉 결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

29) 「理屋說」 “家有頽廡不堪支者凡三間 予不得已悉繕理之 先是 其二間爲霖雨所漏寢久 予知之 因循莫理 一間爲一雨所潤 亟令換瓦 及是繕理也 其漏寢久者 欂櫨椽樑皆腐朽不可用 故其費煩 其經一雨者 屋材皆完固可復用 故其費省 予於是謂之曰 其在人身 亦爾知非而不遽改 則其敗已不啻若木之朽腐不用 過勿憚改 則未害復爲善人不啻若屋材可復用 非特此耳 國政亦如此 凡事有齒民之甚者 姑息不革 而及民敗國危 而後急欲變更 則其於扶越也難哉 可不慎耶”

리하느냐를 기초로 하여 전개하였는데, 비교의 대상과 공통점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제 재	유보적 처리	즉각적 처리
집 수리	비용이 많이 듦	비용이 적게 듦
몸 관리	몸을 망침	좋은 사람이 됨
국정	백성과 나라 위태	백성과 나라 안전

작가는 이와 같은 비교의 방법으로 “모든 일은 조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결론은 이 글의 중심적 의미이다. 작가의 이러한 생각은 집 수리의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제재를 통하여 주제를 밝히고, 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4) 「雷說」

1. 나는 천둥소리를 듣고 매우 놀란다.
 - 1.1. 나는 여러모로 반성을 해보다.
 - 1.1. 나는 반성을 해보고 거리낌이 없을 때 안심이 되다.
2. 나는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
 - 2.1. 나는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를 만나면 애써 외면하다.
 - 2.2. 남이 나를 칭찬하면 기뻐하고, 비난하면 싫어하다.
3.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³⁰⁾

이 작품의 제재는 직접적인 제재는 자연 현상인 ‘천둥 소리’이다. 간접적인 제재는 인간 행위인 ‘여자 보기’와 ‘사람의 평가’이다. 이 제재는 모두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실제적인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제 재	반 응	원 인
천둥 소리	두려워함	죄지음
여자 보기	머리 숙여 외면	여자에 대한 마음
나에 대한 평가	기뻐하고 싫어함	인정에 얽매임

30) 「雷說」 “天鼓震時 人心同畏 故曰雷同 予之聞雷 始焉喪膽 及反覆省非 未覺所嫌 然後稍肆體矣 但一事有略嫌者 予嘗讀左傳 見華父目逆事 未嘗不非之 故於行路中 遇美色則意不欲相目 迺低頭背面而走 然其所以低頭背面 是迺不能無心者 此獨白疑者耳 又有一事未免人情者 人有譽已 則不得不喜 有毀之則不能無變色 此雖非雷時所懼 亦不可不戒也 古人有暗室不欺者 予何足以及之”

보통의 사람들은 천둥소리에 놀라고, 예쁜 여자를 보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평가에 기뻐한다. 화자 자신도 보통의 사람들의 반응과 별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려면,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천둥이 칠 때 놀란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 때문이고, 예쁜 여자를 보는 것을 ‘애써’ 외면한 것은 평소에 마음 속에 여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며, 타인의 평가에 기뻐하고 싫어한 것은 남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욕심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는 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자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그의 생각을 도출한다.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시적인 현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화자의 생각은 이 글의 중심적 의미에 해당한다.

작가의 이러한 생각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천둥 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자신의 실제의 예를 통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2. 제재의 전달적 성격

「舟賂說」의 제재는 배의 운영이다. 화자는 자신이 탄 배가 빨리 가지 않은 현상을 목격하고, 그것은 어떤 사람이 사공에게 뇌물을 준 결과임을 알게 된다. 상대적으로 자신은 사공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탄 배가 전진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자신이 깨닫게 이 사실은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화자와 주위에 있는 사람과는 아무런 논쟁이 없다. 단지 화자는 타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새로운 정보를 얻어 현상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중심 내용이 된다.

「忌名說」은 화자(李子)와 오덕전이라는 사람과의 대화가 중심이 된다. 그런데 대화의 주체가 되는 이 두 사람은 공통되는 제재를 대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 단지 대화는 화자가 오덕전의 인물됨에 대한 주위의 평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대화는 당시의 일반적인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어 정당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제재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중심 내용이 된다.

「理屋說」은 화자가 집을 수리하면서 경험하게 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 것이다. 화자의 의도는 “정사에 잘못이 있다면 제 배에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하고, 이를 전달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화자의 생각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집 수리의 구체적 경험에서 깨달은 사실이 보편적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집을 수리하는 행위를 통하여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雷說」은 천둥, 여자, 인정의 제재를 통하여 “마음을 속이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즉 마음의 태도에 따라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내용이 달라짐을 나타낸다. 이 결론은 행동의 규범이 되는 정신적 가치로서의 진리에 해당된다. 작가는 구체적인 제재에서 진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이상의 네 작품은 확인·전달의 구조를 취한다. 이는 화자가 제재를 통하여 미처 알지 못한 정보를 새롭게 인식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이다. 제재에서 언급되는 정보나 지식은 특별히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제재의 성격이 이미 있는 진리이거나 변함없는 정신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 속의 대화도 인식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친다. 이점에서 변증법적 성격을 띠는 설득·공감의 구조에서의 대화와 차이가 있다.

Ⅲ. 작품의 의미 해석

지금까지 이규보의 說 형식의 작품을 제시 방식과 구조라는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 보았다. 설득·공감의 구조는 다루는 제재가 설득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확인·전달의 구조는 다루는 제재가 정보적 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를 지닌 작품들이 說의 양식적 특성상 우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주제를 사회적 문맥이나 내면적 가치와 결부하여 해석할 수 있다.

A. 객관 현실의 비판

「風犬說」에서 ‘이’와 ‘개’는 사람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¹⁾ 이 작품에 표현된 개의 죽음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정권이 바뀔 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비유하고, 이의 죽음은 독재 정치를 하던 무신 정권의 지나친 착취를 견딜 수 없어, 고향을 버리고 떠돌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죽음을 당하던 민중을 비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규보가 속한 지배 계층의 사람들은 같은 계층의 인물이 죽은 것을 슬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규보는 지배 계층에 속한 인물의 죽음과 백성의 죽음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비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이 작품에서 그와 같은 시대에 살던 집권 계층의 생각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된다.³²⁾

「鏡說」에서 중심적 의미는, 거울은 반드시 맑은 것이 아니더라도 흐린 것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흐린 것을 취하는 원인은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이다. 흐린 거울과 맑은 거울, 잘 생긴 사람과 못 생긴 사람은 상관 관계가 있다. 즉 거울이든 사람이든 그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잘 생긴 사람만이 거울을 볼 수 있고, 못 생긴 사람은 거울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얼굴이 잘 생기고 못 생긴 것은 사회적 문맥에서 보면, 권력자의 기호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규보는 작품에서 집권자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치하는 부당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天人相勝說」에서는 부정한 현실을 직접 비판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좌절 경험이 결코 운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화자와 어떤 사람의 대화에서, 자신의 정치적 좌절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설득하고 자신의 의견에 공감하도록 한다. 이규보는, 한 때의 좌절을 극복하고 높은 관직에 진출하게 되는 자신의 역설적 운명을 통하

31) 이대규, 앞의 책, p.139

32) 이대규, 위의 책, p.140

여, 중상모략하여 한 사람의 운명을 좌절시키는 당시의 부당한 관료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舟賂說」은 뇌물 수수가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정계 진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부당한 현실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매관매직의 풍토에서는 벼슬을 얻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임을 예상한다. 이규보는 작품에서 타락한 현실과 정치 관행을 비판하고 있다.

「忌名說」은 오덕전이 이름나기를 좋아하고 거만한 사람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평가가 사실이 아님을 말한다. 오히려 그가 이름이 난 것은 계속되는 불우한 삶과 곤궁함에서 오는 것이므로,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덕전은 당시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위의 부정적 평가 때문에 불우하게 생활한 사람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이규보는 작품에서 이러한 인물에 동정을 나타내고, 능력있는 사람을 불우하게 만든 당시 관료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B. 이상 가치의 추구

「理屋說」, 「雷說」, 「壤土室說」은 위 작품들과는 달리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되는 이상적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理屋說」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제 때에 고쳐야 한다는 실천의 문제를 다루었다. 작품 속에서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國政」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이상적인 통치 형태를 말한 것이다. 즉 자기가 속한 계층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백성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상적 정치 행태를 강조한 것이다. 「雷說」은 일시적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변함 없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도덕적 당위성을 다루었다. 「壤土室說」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어겨서는 안됨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본성을 지킬 수 있다는 정신적 가치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규보의 수필 작품은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에 따라 설득·공감의 구조와 확인·전달의 구조로 나누어졌다. 작품의 제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거

나 간접적으로 관찰한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당시의 사회 현실을 문제삼고 있다. 인뜻 작품에서 현실 비판과 이상 가치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진 듯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즉 정신적 이상 가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로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정신적 가치의 기반이 확고할 때 현실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다룬 여러 문제들은 “당대에 유용한 것이고, 의미가 정확한 것”(必使時利而義貞)³³⁾이며,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신의 명예를 얻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進有契於成務 退無阻於榮身)³⁴⁾들이다. 각각의 작품을 통하여 이규보는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거나 이상적 가치의 내면화를 중시한 자신의 태도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현실의 비판과 신념의 표출은 자신과 동일 집단인 고려후기 신흥사대부 계층의 현실 인식과 정치적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³⁵⁾

IV. 結 論

李奎報 수필 문학의 한 특징을 연구하려는 목적에서, ‘說’ 형식의 작품을 대상으로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수필의 장르 성격에 비추어 ‘說’의 수필적 성격을 밝히고, 다음으로 작품의 구조 분석과 의미 해석을 하였는데, 논의된 결과를 차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규보의 ‘說’ 작품은 제재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재에서 도출한 주제의 전달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화자가 ‘나’, ‘李子’, ‘居士’ 등으로 나타나는데, 모두 작가와 일치하는 일인칭 화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이규보의 ‘說’을 수필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필 수 있었다.

둘째, 작품의 구조를 설득·공감의 구조와 확인·전달의 구조의 두 가지로

33) 劉繼 저/최동호 역편, 앞의 책, p.239

34) 劉繼 저/최동호 역편, 위의 책, p.239

35) 이규보의 현실 인식은 문학 사상에서도 반영되었다. 김병권님의 「한국 고전문학 비평의 이해」(『오늘의 문예비평』 9호, 책읽는 사람, 1993·여름)과 필자의 「用事論과 新意論의 실체」(『語文教育論集』13·14합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94) 참고.

나누어졌다. 설득·공감의 구조에 속하는 작품은 「風犬說」, 「鏡說」, 「壤土室說」, 「天人相勝說」 등이었다. 이 작품들은 공통되는 제재에 대하여 화자와 상대방이 상이한 의견을 나타내고, 서로의 대립적 의견은 대화를 통해서 확인되고,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설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을 알았다. 즉 제재에 대한 화자의 의견 제시와 상대방의 공감의 초점이 된다. 그 공감의 내용은 손님에게는 미처 알지 못한 사실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재는 설득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셋째, 확인·전달의 구조에 속하는 「舟賂說」, 「忌名說」, 「理屋說」, 「雷說」 등이었다. 이 작품들은 화자가 제재에서 미처 알지 못한 정보를 새롭게 확인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이다. 제재에서 언급되는 정보나 지식은 논쟁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화자는 제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게 됨을 알았다. 그리고 화자의 생각은 객관적인 현상이나 가치에 관련된다. 이미 있던 현상이나 가치이므로 새로운 진리라고는 볼 수 없다. 화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제재를 통하여 일반적인 사실이나 관념을 확인하고,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재는 전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넷째, 이규보의 작품은 다양한 사회 문제와 이상 가치를 다루고 있다. 우선 「風犬說」, 「鏡說」, 「天人相勝說」, 「舟賂說」, 「忌名說」 등은 그 제재가 사회 현실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작품들은 부당한 관료 사회의 횡포, 뇌물 수수가 만연한 타락한 현실, 정치 집단의 중상모략 등 사회의 부정과 모순 현상을 문제로 삼았는데, 그의 현실 비판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理屋說」, 「雷說」, 「壤土室說」 등의 작품은 인간의 행위의 규범이 되는 이상적 가치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작품의 주제는, 내면화하여 행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사대부의 이상적 가치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해석된다.

여섯째, 이규보의 작품은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대화나 비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說」이 일반적으로 간접적 방식으로 형상화된다는 점과 일치함을 보여주는데, 「說」의 문체적 특성을 잘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